

‘한국의 서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관 변화 양상

윤수련* · 소현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조경학과 석사과정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Landscape Transformations in the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s of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Yoon, Soo-Lyun* · So, Hyun-Su**

*Master’s Cours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Urban Sciences, The University of Seoul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landscape transformations in the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s of the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ncluded i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First, we noted that during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Introduction Period (1962–2010), relic exhibition halls, education centers, and museums were introduced into the precincts and forecourts of *seowon* as part of state-led cultural heritage restoration and purification projects. In the Landscape Management Planning Period (2011–2019), comprehensive plans for the restoration of the *seowon* were developed and implemented in preparation for UNESCO World Heritage inscription. These plans included improvements to access routes, creation of parks, expansion of visitor facilities, and introduction of *hanok* stays. In the Tourism Infrastructure Expansion Period (2020–present), following inclus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projects such as parking lot expansions and village landscape improvements were undertaken to meet increasing tourist demand and regional development needs. Second, we examined spatial structure and order in patterns of landscape change by type. At *Namgye-seowon* and *Dodong-seowon*, the adjacent facility type revealed diminished spatial hierarchy, while at *Sosu-seowon* and *Oksan-seowon*, the separated facility influence type resulted in confusion in the hierarchical order. Next, Approach Landscape Experience was categorized into two types. At *Dosan-seowon*, *Byeongsan-seowon*, and *Oksan-seowon*, the linear path type provided a gradual sense of approach along rivers and valleys. In contrast, at *Donam-seowon* and *Piram-seowon*, the plaza and park type produced heterogeneous landscapes in village settings, which were identified as problematic. In terms of landscape design elements, we also identified issues concerning the placement, scale, form, and materials of public buildings; the roof structures of surrounding private houses; and the lack of harmony with newly created parks and green spaces. Third, we confirmed that various policy-driven projects laid the ground for changes in *seowon* landscapes, involving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as well as destruction and restoration. The findings suggested that the permitted standards for construction activities in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s designated for *seowon* landscape management must be reinforced to achieve balanced harmony between traditional spatial order and contemporary use.

Key words: Spatial Structure and Order, Landscape Management, Landscape Design Elements, Approach Landscape

국문초록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서원’ 9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관 변화를 고찰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존·활용 도입기(1962~2010년)에는 문화재 보수·정화 사업에 따른 유물전시관, 교육관, 박물관이 서원 경내와 전면부에 도입되었다. 경관관리 계획기(2011~2019년)에는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며 서원의 종합정비계획이 수립·시행되어 진입 동선 정비, 공원 조성, 편의시설 확충,

[†]Corresponding Author : So, Hyun-Su,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Seoul 02504, South Korea.
Tel.: +82-2-6490-2848, E-mail: hssso@uos.ac.kr

한옥스테이가 도입되었다. 관광기반 확장기(2020년~현재)에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 관광 수요와 지역 개발 요구에 대응한 주차장 확장, 마을 경관 개선 사업이 추진되었다. 둘째, 유형별 경관 변화 양상으로서 먼저 ‘공간 구조와 질서’ 관점에서 남계서원, 도동서원의 가시되는 시설 인접형의 왜소화 문제와 소수서원, 옥산서원의 이격된 시설 영향형 위계의 혼동 문제를 이해하였다. 다음으로 ‘진입 경관 체험’은 하천과 계곡에 입지한 도산서원, 병산서원, 옥산서원의 점진적 진입감을 제공하는 동선형과 마을에 입지한 돈암서원, 필암서원에서 이질적 경관을 만든 광장·공원형의 문제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관 디자인’ 항목에서 공공건축물의 위치와 규모·형태·재료 등 디자인, 주변 건축물의 디자인, 새로 조성된 공원·녹지의 부조화 문제를 도출하였다. 셋째, 서원 경관 변화의 배경으로 정책에 의한 보존과 활용, 훼손과 회복 관련 사업들을 확인하였다. 이는 서원의 경관 관리 제도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에 대한 허용 기준이 보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공간 구조와 질서, 경관 관리, 경관 디자인, 진입 경관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19년 9개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으로 등재되었다. 서원이 조선시대 성리학 교육기관을 대표하여 학문적 전통을 증명하는 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다[1]. 한편, 서원의 입지 선정에서 중시하였던 자연산수와 조화로움은 오랜 시간이 흘러 삶의 방식이 바뀐 지금, 기능과 이용행태, 주변 토지이용의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서원의 보존과 관련하여 국가유산 사적이나 세계유산의 지위에 합당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도록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이후 추진된 서원별 종합정비계획은 건축물 보수와 기능 보완에 치중하고, 편의시설을 다루는데 그치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 한편 세계유산 등재 이후 늘어나는 방문자를 수용하기 위한 진입로 확장, 주차장 조성, 전시관이나 숙박시설 건립으로 서원 주변 자연과 경관의 훼손 문제가 야기되었다. 그동안 서원 경내의 경관 보존과 편의시설 도입에 주목하였다면 이제 바깥 영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동안 건축, 교육, 의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원 연구가 축적되었다. 초기에는 서원의 성립 배경과 입지 환경, 공간 구성, 상징성 이해를 목적으로 하였고[2][3], 점차 성리학적 질서와 미학적 원리를 반영한 전통 경관 분석[4]으로 전개되었다. 더불어 서원 활용을 위해 관광 자원 접근으로 이어졌다[5][6]. 이어 보존과 정비 측면에서 식재 현황 실측 조사[7], 시각 경관 평가[8]와 보존 구역 설정[9]을 다루었다. 이러한 성과는 세계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은 서원이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시기에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품격에 맞는 공간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2012)」을 출간하였다[10]. 서원 영역 주변을 ‘배경 영역(진입/경관)’이라고 설정했으며, 9개 서원별 경관관리 항목과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개별

서원이 아니라 연속유산(serial property)으로서 통합적 경관 관리 체계가 요구되는 9개 서원이 세계유산 등재라는 커다란 환경 변화를 겪으며 만들어온 경관을 조경의 시작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하고자 한다. 현시점에서 ‘한국의 서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대상으로 경관 변화 양상과 주요 문제점, 그 배경이 된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활용 요구가 점차 증대되는 여건에서 서원의 바람직한 관리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에 해당되는 영주 소수서원, 함양 남계서원, 경주 옥산서원, 안동 도산서원, 장성 필암서원, 달성 도동서원, 안동 병산서원, 정읍 무성서원, 논산 돈암서원을 대상으로 한다(표 1). 각 서원은 설립 배경, 제향 인물, 지역적 맥락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입지로 확보된 외부 경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경관 구성을 원리를 공유하였기 때문에 시계열적 경관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서원의 경관 가치를 유지하려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핵심 영역

표 1. 연구 대상 서원의 개요

번호	명칭	유산구역	원충구역	사적 지정일
1	영주 소수서원	178,105m ²	948,415m ²	1963.01.21
2	함양 남계서원	40,716m ²	813,239m ²	2009.05.26
3	경주 옥산서원	63,027m ²	822,931m ²	1967.03.08
4	안동 도산서원	360,398m ²	2,037,818m ²	1969.05.28
5	장성 필암서원	13,334m ²	518,278m ²	1975.04.23
6	달성 도동서원	25,004m ²	879,906m ²	2007.10.10
7	안동 병산서원	306,506m ²	1,927,350m ²	1978.03.31
8	정읍 무성서원	8,215m ²	561,752m ²	1968.12.19
9	논산 돈암서원	38,840m ²	482,628m ²	1993.10.18

(등재신청서[1]와 시계열 분석 보고서[11]를 참조하여 작성)

을 '국가지정유산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경계 바깥쪽 영역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HCEPA)'을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국제적 기준에 따라 '세계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지정하여 유산의 핵심 가치부터 점진적으로 외부 환경까지 보호 범위를 확장시켰다. 보존과 관리의 목적 및 강

도에 따라 설정된 영역 중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공간적 범위가 가장 넓다(그림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2010년 「문화재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문화유산의 핵심 가치를 유지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물리적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역사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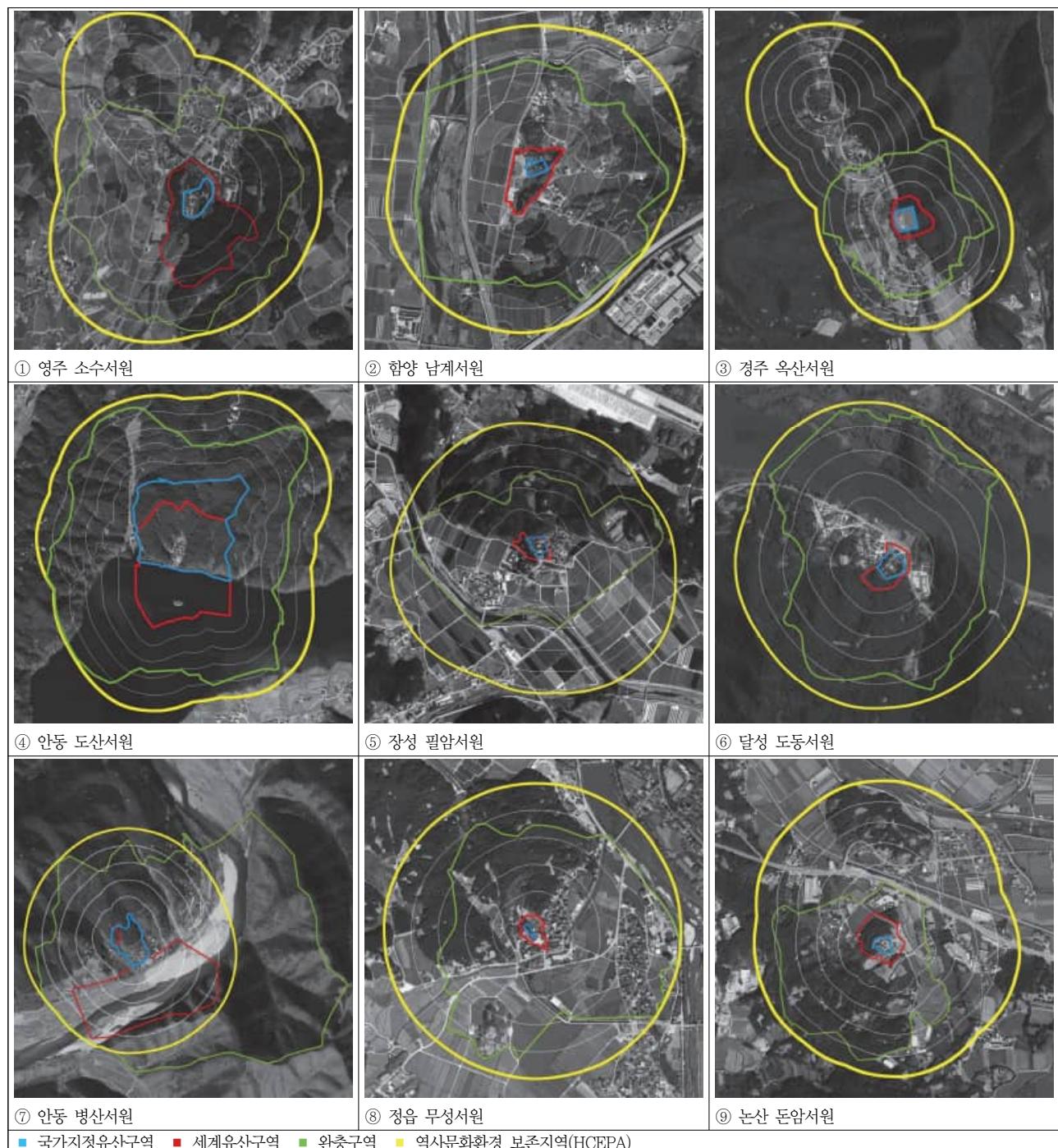


그림 1. 서원별 관리 제도상의 구역도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안내서[14], 국가유산디지털 서비스[15], 통합관리센터 홈페이지[16]를 참조하여 작성)

환경 보존지역’은 해당 지정 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로 지정된 대[12]. 같은 법 제2조 제7항에는 ‘역사문화환경’을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이라고 정의하였다.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기반 하에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으로 유산 유형별 경관 보전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핵심 가치 보호를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과도한 규모와 경관을 저해하는 형태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13]. 이러한 배경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서원의 경관 변화를 개별 사례의 단편적 정보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항공사진과 정책 자료를 활용하여 시기별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경관 가치 판단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표화하였다. 먼저 서원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서원에 근접한 시각적 영향권을 중심으로 1940년대부터 2024년까지의 항공사진을 수집·분석하였다. 이때 두드러지는 경관 변화의 전환점을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이해하고 경관 변화의 양상을 세 시기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하여 개별 서원의 경관 변화를 종합하여 시기별 특징을 도출하였다.

먼저 ‘보존·활용 도입기(1962~2010년)’는 1962년 「문화재 보호법」 제정으로 고적 보존과 성역화 사업이 진행되었다. 뒤를 이은 「경관관리 계획기(2011~2019년)」는 2010년 「문화재보호법」 전면 개정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도입, 2011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를 배경으로 서원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물리적 경관 개입과 관리 체계가 본격화되었다. 마지막 「관광 기반 확장기(2020년~현재)」는 2019년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 후 관광 수용력을 높이기 위한 경관 변화가 집중되었다. 이러한 시기 구분은 서원의 경관이 자연스럽게 변화되었다기보다 정책·제도적 맥락과 긴밀히 연계되었음을 주지한 것이다.

서원의 구체적인 경관 변화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의 서원·향교 유형의 역사문화환경 중점관리 지표인 장소성, 왜소화, 조망성, 마루선, 일체성을 참고하였다(표 2). 서원 경내가 아닌 외부에서 이루어진 변화로써 앞서 시계열 분석 결과를 감안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현장 설명력을 지니도록 세부 기준을 재해석하여 분석을 위한 경관 변화 유형을 ‘공간 구조와 질서’, ‘진입 경관 체험’, ‘경관 디자인’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설정하였다. ‘공간 구조와 질서’ 항목은

표 2. 서원·향교의 역사문화환경 중점관리 지표[30]

중점관리지표		세부 검토 기준
장소성	원위치 임지 여건	· 주변 지역 개발 정도 및 개발 가능성과 함께 지형적 특성 고려 · 마을 및 평지에 위치한 서원·향교는 주변 지역 건축물 및 시설물의 규모와 이격거리 검토
일체성		· 주변 지역의 지형적 특성, 규모 및 공간구성의 특징, 옛길, 풍수적 관계 등 고려
조망성	내·외부 진입부	· 전면 주 진입부(외삼문, 홍살문 등)의 조망성 확보 · 대성전, 명륜당, 외삼문, 홍살문 등을 내부 조망점으로 설정하여 안산(案山)으로의 조망성 확보 · 대성전 또는 명륜당 등의 윤곽선 조망이 용이한 지점을 외부 조망점으로 설정
마루선		· 대성전, 명륜당, 외삼문 등에서 조망되는 배경 보존, 주산(主山)의 마루선 보호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간과 시설 도입으로 인하여 경관의 일체성이 사라지고 왜소화 등 서원의 경관적 위상과 위계를 변화시키는 양상이다. 조망성과 관련된 ‘진입 경관 체험’ 항목은 방문자가 서원으로 접근하면서 경험하는 시각적 인상과 장소성을 변화시키는 양상이다. 마지막으로 ‘경관 디자인’ 항목은 현장에서 마주하는 공공건축물과 시설물, 주변 건축물과 녹지 등 시각적 요소의 형태·색채·질감을 포괄하는 디자인의 문제 양상을 설명한다.

본 연구는 먼저 9개 서원의 현장조사를 통해 경관적 문제를 기록하고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이를 앞서 설정한 세 가지 유형별 서원의 경관 변화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관련 정책 문서와 조사연구 보고서를 고찰하여 이러한 변화가 어떤 정책과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인지 파악하였다. 주요 참고문헌으로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2012)」[10]과 「202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주요 건축물 이력-서원 건립부터 2021년까지-(2021)」[17],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건축물 및 수목 현황 조사(2022)」[18]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2020년 이전의 변화는 서원별 「종합정비계획 보고서(2013~2021)」[19-27]와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안내서(2020)」에서 파악하고[14], 이후의 변화는 「한국의 서원 경관자료조사연구(2023)」[28],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정기점검보고서(2025)」[29]에서 확인하였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홈페이지[16], 그리고 인터넷 검색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보완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별 건축물의 복원·수리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자료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가유산 담당자에게 질의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였다. 일부 관련 사업은 자료 접근이 제한되어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절차로 시기별, 유형별 서원의 경관 변화 양상과 의미를 해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서원 경관 변화의 시기별 특징

1) 보존 · 활용 도입기(1962~2010년)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2000년대까지는 문화유산 보존 정책의 기틀이 마련되면서, 유산의 물리적 복원과 교육적 기능 강화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시기의 핵심 가치는 '원형 보존'과 '성역화'였으며, 이에 따라 서원 경내 또는 인접 부지에 유물전시관과 교육관이 신축되는 형태가 나타났다 (표 3). 대표적으로 1970년 안동 도산서원의 유물전시관 신축을 시작으로(그림 2-4-a) 영주 소수서원의 충효교육관(1992) 건립(그림 2-1-a), 달성 도동서원의 유물전시관(1999) 등 이 해당하며(그림 2-6-a), 이를 통해 서원의 활용이 모색되었다.

이와 다른 양상으로서 일부 서원에서는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영주 소수서원은 2004년 건립한 소수박물관 · 선비촌과 한국선비문화수련원(2008)을 연계하여 복합적인 관광지로 확대하였고(그림 2-1-a), 장성 필암서원은 2007년 서원 전면 농지를 공원으로 전환하고, 유물전시관(2008)과 집성관(2010)을 건립하여 경관의 변화를 유발했다(그림 2-5-a). 경주 옥산서원에서도 2010년 대규모 유물전시관 건립과 함께 주차장, 화장실을 마련하여 전면부 공간 구조를 바꾸었다(그림 2-3-b)¹⁾.

2) 경관관리 계획기(2011~2019년)

2011년 12월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이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9개 서원 모두 1차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진입 동선 정비, 시각축 확보, 편의시설 조성 등 다양한 물리적 개입이 이루어졌으며(표 3), 2018년과 2019년 항공사진에서 이러한 경관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정비의 초점은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 확보를 위한 형식적 요건 충족에 맞추어졌다. 대표적으로 2017년 논산 돈암서원은 이코모스(ICOMOS) 자문 의견에 따라 산양루 담장을 철거하고²⁾, 전면부 공간 구조를 재편하였다(그림 2-9-b). 이러한 정비 사업은 전체 서원의 경관 구조와 공간 배치를 일정 수준 이상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관광 수요 대응을 위한 서원 외부 부지 활용도 본격화 되었다. 논산 돈암서원은 이격된 대규모 부지에 한옥마을(2013)과 예학관(2017)을 신축하였다. 또한 종합정비계획에 제시된 전면 농경지의 공원화 계획은 2019년 돈암서원 문화공원 조성으로 이어졌으나, 현재 일부 휴게공간만 조성되고 대부분은 대규모 녹지 형태로 남아있다(그림 2-9-b). 함양 남

계서원은 인접 부지에 남계 한옥스테이(2014)와 관광안내소(2015)를 신축했고(그림 2-2-b), 정읍 무성서원은 2011년 주차장과 관광안내소를 조성했다(그림 2-8-b). 안동 병산서원 역시 관리사무실과 화장실, 송계현 한옥스테이(2017)(그림 2-7-b)를 신축하였다. 앞서 보존 · 활용 도입기에서 대규모 현대식 시설 도입을 보인 경주 옥산서원과 장성 필암서원과는 달리, 경관관리 계획기에는 함양 남계서원과 달성 도동서원에서 전면부 공간 구조가 새롭게 변모하였다. 반면 안동 병산서원과 논산 돈암서원은 비교적 이격된 부지를 확보하여 시설을 배치함으로써 경관적 배려가 고려되었다.

3) 관광기반 확장기(2020년~현재)

2019년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서원의 역사문화환경은 보존과 활용의 병행이 동시에 요구되었다. 기간이 짧아 변화의 다양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넓은 면적을 활용한 변화가 특징적이다. 이러한 변화는 관광 수요의 증가와 지역 개발 요구, 상업화 등 외부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표 3).

달성 도동서원에서는 2023년 서원 영역보다 큰 규모의 도동유교문화관과 한옥스테이가 신축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다른 서원들보다 시기적으로 늦게 나타난 변화이다. 2024년에는 서원 전면부 기존 주차장 부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별도의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였다(그림 2-6-c). 반면 함양 남계서원은 전면부 인접 공간에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여, 편의시설을 유산과 이격 배치하는 경관 관리 방향과 상충하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2-2-c). 경주 옥산서원은 2022년 기존 주차장을 확장하고 주변 포장을 정비하였다(그림 2-3-c).

한편 정읍 무성서원은 2012년 민가의 외벽과 지붕 색채 보수에 이어 2022년에는 노후 민가 지붕 개량이 이루어졌는데(그림 2-8-c), 이는 2010년대 후반 장성 필암서원에서 지역 주민 주도로 추진된 사업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된다(그림 2-5-b). 현재 함양 남계서원에서는 교육체험관 건립이 진행 중이며, 장성 필암서원은 관광안내소 신축이 예정되어 있고, 정읍 무성서원 또한 진입로 정비가 계획되어 있어 향후 서원의 역사문화환경의 추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표 3. 서원 경관 변화의 시기별 특징

시기	배경	경관 변화의 특징
보존 · 활용 도입기 (1962~2010)	· 「문화재보호법」 제정 · 성역화 사업 전개	원형 보존과 교육 기능 강화, 경내 및 전면부 시설 신축 등
경관관리 계획기 (2011~2019)	·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 종합정비계획 수립	진입 동선 정비, 편의시설 확충, 전면부 공간 구조 재편 등
관광기반 확장기 (2020~현재)	· 세계유산 등재 · 관광 수요 증가 · 지역 개발 요구 · 상업화	대규모 시설 추가 도입, 편의시설 개선, 인접 마을 경관 개선 등

구분	보존·활용 도입기(1962~2010년)	경관관리 계획기(2011~2019년)	관광기반 확장기(2020년~현재)
① 영주 소수서원	<p>a. 2008년</p>	<p>b. 2019년</p>	<p>c. 2024년</p>
② 함양 남계서원	<p>a. 2008년</p>	<p>b. 2019년</p>	<p>c. 2024년</p>
③ 경주 옥산서원	<p>a. 2008년</p>	<p>b. 2019년</p>	<p>c. 2024년</p>
④ 안동 도산서원	<p>a. 2008년</p>	<p>b. 2019년</p>	<p>c. 2024년</p>
⑤ 장성 필암서원	<p>a. 2009년</p>	<p>b. 2019년</p>	<p>c. 2024년</p>
⑥ 달성 도동서원	<p>a. 2008년</p>	<p>b. 2019년</p>	<p>c. 2024년</p>

그림 2. 시기별 서원의 경관 변화 양상-1

(항공사진[31]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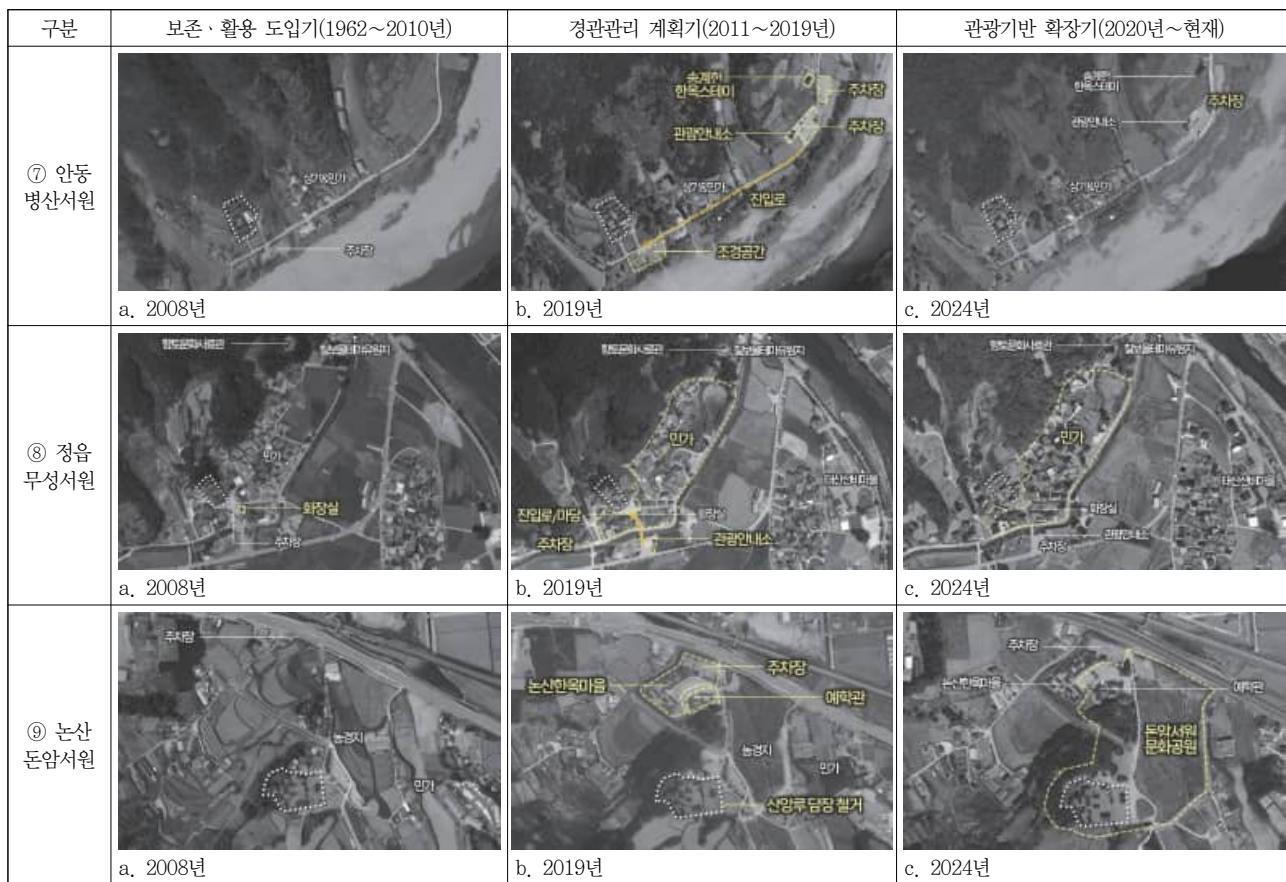


그림 2. 시기별 서원의 경관 변화 양상-2

(항공사진[31]에 작성)

2. 서원 경관 변화의 유형별 특징

1) 공간 구조와 질서

(1) 가시되는 시설 인접형

서원은 자연지형 위에 유교적 질서로 구축된 건물이 조화롭게 입지하여 내·외부 공간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2014년 함양 남계서원과 청계서원 사이 부지의 민가를 철거하고 남계 한옥 스테이를 신축하면서 유산과 혼동될 수 있는 경관을 만들었다

(그림 3-a). 2023년에는 달성 도동서원 인접 부지에 도동유교문화관과 한옥스테이가 신축되어 기존 민가 및 카페와 함께 서원보다 큰 규모의 영역을 만들었고(그림 3-b), 관람 동선 또한 현대 시설을 거쳐 접근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장성 필암서원도 전면부 넓은 농경지를 주차장(2006)과 공원(2007)으로 전환하고, 유물전시관(2008)과 집성관(2010)을 배치하여 전면부 공간 구조를 크게 바꾸었다(그림 3-c). 이처럼 서원 전면부에 현대 시설을 도입하는 방식은 정리되지 않은 주거 경관을 정비하는 긍정적 기능을 의도하였으나, 동시에



그림 3. 공간 구조와 질서-가시되는 시설 인접형 변화 사례

서원의 왜소화와 전통적 공간 질서의 변형에 맞물려있다.

(2) 이격된 시설 영향형

영주 소수서원 인근에는 소수박물관·선비촌(2004), 한국선비문화수련원(2008)을 순차적으로 조성하여 체험을 위한 대규모 단지를 형성하였다. 이 시설들은 서원과 일정 거리를 두고 있어 시각적 간섭은 적지만(그림 4-a),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배경 영역 맥락을 변화시켜 서원의 공간적 위상을 약화시키고 경관 분위기를 가볍게 만드는 경향을 보였다. 비슷한 사례로 논산 돈암서원은 한옥마을(2013)과 예학관(2017) 부지에 마련된 주차장에서 관람동선이 시작되어 서원 영역을 상대적으로 왜소하게 인식하게 한다(그림 4-b). 과거 이곳은 양호한 수립대가 서원을 가리고 있어 위해요소로 지적되었으나[10] 서원 연계를 위한 대규모 체험 시설 도입이 적절한 개선 방법인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산에 둘러싸인 우수한 계곡 경관을 배경으로 입지한 경주 옥산서원도 진입부에 주차장, 관광안내소, 화장실, 유물전시관(2010)이 집중 배치되어 전통 경관과 현대 시설 영역이 뚜렷하게 대치된다(그림 4-c). 안동 병산서원 진입로 초입에 2017년 송계현 한옥스테이가 신축되었으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아 위압적이지는 않다(그림 4-d). 이러한 사례는 현대시설이 서원 영역에 직접 맞닿지 않더라도 방문자가 먼저 경험하는 경관으로서 서원의 상징성과 위계에 영향을 미치며, 서원이 경관의 주체로 인식될 수 있는 공간 구조와 질서를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진입 경관 체험

(1) 동선형

하천과 계곡 가까이 입지하여 자연경관이 우수한 서원들은 이격된 주차장에서 시작되는 방문자 관람 동선을 통해서 점진적 경관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통적 맥락과는 다른 현대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경관의 성격이 변용되었다. 안동 도산서원의 안동댐 건설로 신설된 진입로(1974)상에 조망공간과 천광운영대가 조성되어 있으나, 일부 구간 경계부에는 전정된 향나무 생울타리가 조성되어 낙동강으로의 조망을 제한하고 있다(그림 5-a). 이러한 식재 방식은 전통적 경관 구성 방식과 차이를 보이며 전통 경관적 맥락 속에서는 다소 이질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안동 병산서원은 협소했던 진입로가 확장되면서 접근성은 개선되었으나, 좌측의 병산과 낙동강 경관과 달리 반대편은 2017년 진입로 초입으로 이전한 주차장과 관광안내소, 송계현 한옥스테이(그림 5-b) 및 민가·상가로 구성되어 경관의 이질성이 두드러진다(그림 5-c). 경주 옥산서원 역시 이격된 위치에 주차장을 두어 진입 편의성을 확보하였으나 2022년 확장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인공적 경관의 비중이 증가하였다(그림 5-d). 정읍 무성서원은 2010년 진입로와 입구마당을 정비하고, 2011년 전면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었으나(그림 5-e), 짧은 진입로에서 가시되는 교량의 장식 난간과 노후 민가 건축물을 가리는 토석담이 복잡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그림 5-f)³⁾.



그림 4. 공간 구조와 질서-이격된 시설 영향형 변화 사례

(항공사진[34]에 작성)



그림 5. 진입 경관 체험-동선형 변화 사례

(2) 광장·공원형

마을 경관이 우세한 입지의 서원에서는 교육·체험·전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면부에 공원이나 광장을 조성하여 개방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장성 필암서원(2006)과 함양 남계서원(2015)은 넓은 공원형 녹지를 조성하였으나, 서원의 고유 영역과는 이질적 분위기를 형성하였다(그림 6-a, 6-c)⁴⁾. 특히 장성 필암서원 주차장에서 공원을 통과하는 새로운 진입 동선이 만들어지면서 진입 경관 경험이 달라졌다(그림 6-b).

달성 도동서원은 2024년 신설 주차장을 마련하고 기존 주차장을 공원형 녹지로 전환했으나 소극적인 디자인으로 인해 경관적 개선 효과는 미흡하였다(그림 6-d). 논산 돈암서원은 산양루 주변 담장을 철거하면서 광대한 마사토 포장면만 남겨져 진입 방향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실무적으로 배수 처리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그림 6-e). 2019년 조성된 돈암서원 문화공원 역시 진입 경관으로서의 매력은 부족하다(그림 6-f).

방문자는 세계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진정성이



그림 6. 진입 경관 체험-공원형 변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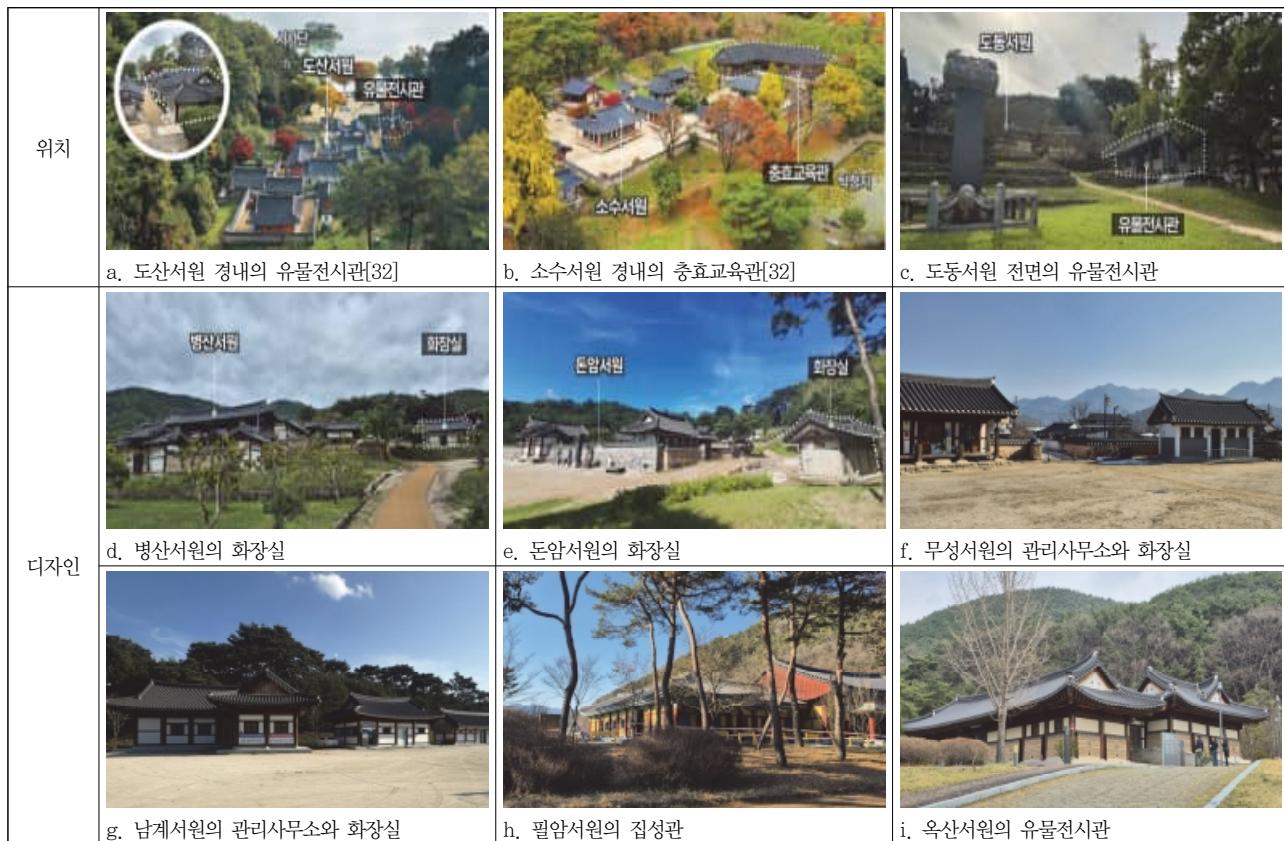


그림 7. 경관 디자인-공공건축물의 위치와 디자인 변화 사례

전달되는 경관에서 체험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특히 진입 공간은 이러한 기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여러 곳에 ‘서원말’이라는 지명이 남겨진 것처럼 과거에는 서원 주변에 민가와 농경지가 펼쳐져 완충공간 기능을 했으나, 현대에는 교육 대신 관광 목

적의 방문이 우세해지면서 다양한 편의시설로 대체되었다. 기존 민가를 부정적으로 경관으로 평가하여 지역 이미지 쇄신과 녹지의 효용성 확보를 시도했으나, 그 결과는 서원 고유 경관과의 부조화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광장·공원형 유형은 단순한 개



그림 8. 경관 디자인-주변 건축물의 디자인 변화 사례

방 녹지 조성이 아니라 다양한 관람 행태를 수용하면서도 궁정적 진입 경관 체험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

3) 경관 디자인

(1) 공공 건축물의 위치와 디자인

안동 도산서원은 경내에 유물전시관을 신축하여 전통 영역에 현대 시설을 도입한 첫 사례이며(그림 7-a), 이후 영주 소수서원은 충효교육관(1992)을 경내에 설치하였고(그림 7-b), 달성 도동서원도 서원 전면에 유물전시관(1999)을 신축하여 같은 양상을 보였다(그림 7-c). 이처럼 한옥 형태를 취한 현대 건물이 경내에 도입되면서 전통 구조의 진정성이 저해되었다.

초창기 사례인 병산서원 화장실(1981)과 이후 조성된 돈암서원 화장실(2016)은 서원 영역 내에 설치되었으나, 전통 한옥 양식을 모방하여 기존 서원 건물과 구분되지 않는 형태를 보인다(그림 7-d, 7-e).⁵⁾ 정읍 무성서원과 함양 남계서원에서는 현대 재료를 사용한 한옥 형태의 관리사무소와 화장실이 조성되었고(그림 7-f, 7-g), 장성 필암서원의 집성관과 경주 옥산서원의 유물전시관은 과도한 규모로 지어져 주변 공간과의 비례감을 해쳤다(그림 7-h, 7-i).

이러한 사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공공건축물의 규모와 형태가 경관적 부담으로 이어짐을 시사한다. 특히 필암

서원의 경우 현재 건물 리모델링이 진행 중으로 향후 예측되는 이용 행태와 수용력을 신중히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2010)」에서는 역사공간에 도입되는 공공건축물은 문화유산을 압도하는 대규모 건축물을 지양하여 면적을 최소화하고, 문화유산과 형태적 충돌이 없도록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도록 제시하고 있다[35]. 따라서 향후 공공건축물의 도입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서원의 전통적 조화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주변 건축물의 디자인

정읍 무성서원은 2012년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인접한 마을의 민가 지붕을 개량함으로써(그림 8-a) 채도가 높아 지붕이 시각적으로 돌출되었던 경관적 문제를 해결하였다(그림 8-b). 그러나 10년 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 사업'에서는 옥상 위에 한 가지 형태의 한옥 지붕 구조물을 덧씌워 부자연스러운 경관을 조성했다(그림 8-c, 8-d). 장성 필암서원 역시 2017년경 무성서원과 유사한 형태로 마을의 민가 지붕을 개량했다(그림 8-e, 8-f). 이러한 사업들은 노후 주거 환경 개선과 외관 정돈에는 효과적이지만, 획일화와 단순화를 유발하는 양면성을 지닌다. 특히 가볍고 저렴한 현대 재료로 만든 기와지붕 형태는 전통경관과 조화에 한계가 있어 유산 주변에 기와지붕을 고수하는 전략은 다양한 관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림 9. 경관 디자인-시설 부지의 공원 · 녹지화 변화 사례

표 4. 경관 변화 대상과 관련 사업

구분	공간 구조와 질서		진입 경관 체험		경관 디자인	
	변화 대상	관련 사업	변화 대상	관련 사업	변화 대상	관련 사업
영주 소수서원	· 소수박물관 건립(2004) · 선비촌 설립(2004) · 한국선비문화수련원 건립(2008)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2000~2010)	—	—	· 충효교육관 건립(1992)	—
함양 남계서원	· 남계 한옥스테이 건립(2014)	함양 서원 문화 관광자원화 사업(2010~)	· 서원 전면공간 정비(2015) · 주차장 조성(2015) · 교육체험관 신축(예정)	함양 서원 문화 관광자원화 사업(2010~) · 관광안내소 신축(2015)	함양 서원 문화 관광자원화 사업(2010~)	
경주 옥산서원	· 유물전시관 건립(2010)	경주시 장기 종합발전계획(2006)/ 옥산서원 유물전시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2005)	· 주차장 확장 조성(2022) · 포장 개선(2022)	경주시 장기 종합발전계획(2006)/ 경주 옥산서원 종합정비계획(2014) · 공원녹지 조성(2014~)	· 화장실 신축(2010) · 공원녹지 조성(2014~)	경주 옥산서원 종합정비계획(2014)
안동 도산서원	—	—	· 서원 진입로 변화(1974)	안동댐 건설(1974)	· 유물전시관 건립(1970)	도산서원 보수·정화 2차 사업(1970)
장성 필암서원	· 공원 조성(2007) · 유물전시관 건립(2008) · 집성관 건립(2010)	필암서원 성역화 사업(1999~2005)/필암서원 주변 정비사업(2005)	· 주차장 조성(2006)	필암서원 성역화 사업(1999~2005)/필암서원 주변 정비사업(2005)	· 주변 민가 경관 개선(2017~) · 관광안내소 신축(예정)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육성사업(진행 중)
달성 도동서원	· 도동유교문화관 신축(2023) · 한옥스테이 신축(2023)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리길(도동지구)(2016)	· 주차장 조성(2024)	달성 도동서원 종합정비계획(2013)	· 유물전시관 건립(1999) · 기존 주차장 부지 복원 녹지화(2024)	성역화사업 달성 도동서원 종합정비계획(2013)
안동 병산서원	· 송계현 한옥스테이 신축(2017)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2000~2010)	· 구 주차장 조성(1981) · 주차장 조성(2017)	— 안동 병산서원 종합정비계획(2013)	· 화장실 신축(1981) · 관리사무실 및 화장실 신축(2017) · 기존 주차장 부지 복원 녹지화(2017)	안동 병산서원 종합정비계획(2013) 지자체 보수정비 사업
정읍 무성서원	—	—	· 진입로 및 서원마당 정비(2010) · 주차장 조성(2011) · 서원 진입로 정비(예정)	지자체 보수정비 사업 지자체 보수정비 사업 진입부 경관 조성사업(진행 중)	· 화장실 신축(2000) · 주변 민가 경관 개선(2012) · 주변 민가 경관 추가 개선(2022)	— 지자체 보수정비 사업 전라북도 공모사업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2020~2022)
논산 돈암서원	· 논산 한옥마을 신축(2013) · 예학관 건립(2017)	돈암서원 종합정비 기본계획(2009)	· 주차장 조성(2013)	돈암서원 종합정비 기본계획(2009)	· 화장실 신축(2016) · 돈암서원 문화공원 조성(2019) · 산양루 담장 철거(2017)	— 논산 유교문화권 개발기본 계획(2007) 유네스코 이코모스 최종 보고서 의견(2017)

※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찾지 못한 경우 기입하지 않음.

(3) 시설 부지의 공원 · 녹지화

다수의 서원에서는 주차장을 이격된 위치에 새로 조성한 후 기존 주차장 부지를 공원형 녹지로 전환하였다. 안동 병산서원은 2017년 기존 주차장 부지를 녹지화하여 주요 자연경관인 낙동강과 병산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회복한 사례이다(그림 9-a). 달성 도동서원도 2024년 기준 주차장 부지를 녹지화하여 완충공간을 마련하였으나 넓은 잔디면을 가르는 직선 보행로가 형성하는 경관이 다소 이질적인 경관을 형성하였다(그림 9-b).

경주 옥산서원은 서원으로 진입하는 전면부에 유물전시관(2010)을 만들고, 2014년 수립한 종합정비계획에 근거하여 유물전시관에서 서원으로 연결하는 완충적 조경공간을 마련하였지만, 혼재된 공사 시설물 등을 철거한 소극적 녹지 정비 성격을 보인다(그림 9-c). 반면 논산 돈암서원에는 현대 시설인 예학관을 연계하는 공간 체계로 기능하도록 문화공원을 조성했으나, 과도한 규모에 비해 단순하게 휴게시설만 배치되고 식재 비율이 낮아 넓은 녹지 공간이 비워진 채 남아 경관적 완성도가 낮았다(그림 9-d). 이처럼 공원 · 녹지화는 배경 녹지와의 연속성과 전면부 시각적 개방성을 보완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넓고 단순한 공원 · 녹지공간이 역사적 맥락을 수용하려면 보다 상세한 기능과 디자인 전략이 요구된다.

3. 정책에 따른 서원의 경관 변화 양상

서원의 주요 경관 변화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일련의 사업들이 연속적으로 전개되며 이루어졌다(표 4). 대부분의 서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업과 더불어 서원 자체의 보수와 주변 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활동이 병행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이 오랜 기간 누적된 결과이다.

첫 번째 경관 변화 유형인 서원의 ‘공간 구조와 질서’의 변화는 성역화 사업과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으로 대표되는 초기 개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장성 필암서원은 성역화 사업(1999~2005)과 주변 정비사업(2005)을 통해 조성된 대규모 유물전시관과 집성관이 서원 전면에서 노출되었다. 영주 소수서원은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2000~2010)의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빠른 시기에 지역문화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소수박물관 · 선비촌(2004), 한국선비문화수련원(2008) 등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넓게 분포하면서 경관 연속성을 변형시켰다.

2010년대에는 관광 · 체험 기능을 확대를 목표로 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함양 남계서원은 ‘함양 서원 문화관광자원화사업’으로 2014년 한옥스테이라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수용하였으나 청계서원과의 사이 공간에 한옥스테이를 신축함으로써 역사적 경관의 맥락을 교란시켰다. 안동

병산서원의 송계현 한옥스테이 신축은 유교문화자원과 자연 경관을 연계하여 관광 잠재력 극대화를 도모한 사례로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다. 논산 돈암서원도 종합정비 기본계획(2009)에 따라 한옥스테이 형식의 논산 한옥마을(2013)을 조성하였고, 예학관(2017)을 추가 건립함으로써 서원 진입동선과 공간 위계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경관 변화 유형인 ‘진입 경관 체험’은 안동댐 건설(1974)로 인한 안동 도산서원의 진입로 변화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경관관리 계획기에는 각 서원의 종합정비계획을 통해 방문자 접근 편의성과 관람 경험 향상을 목적으로 한 변화가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 등재 전후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면 마당을 정비하고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서원 진입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남계서원의 ‘함양 서원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이나 도동서원의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리길(2016)’ 사업 역시 동일한 목적 아래 접근 체계를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세 번째, ‘경관 디자인’ 변화 유형은 서원 경내에 현대 시설이 도입되면서 나타났다. 가장 먼저 안동 도산서원은 ‘도산서원 보수 · 정화 2차 사업(1970)’으로 유물전시관(1970)을 신축하였으며, 영주 소수서원에서는 사료관(1982)과 충효 교육관(1992)을 건립하였다. 경주 옥산서원은 유물전시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2005)에 따라 2010년에 완공하였으며, 장성 필암서원은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안내소 신축이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은 기존 낙후한 유물 보존 시스템을 과학적 ·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공개하여 유교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지니지만 그와 동시에 서원 경내에 현대 시설이 입지함으로써 전통적 공간 질서와의 조화 문제가 제기된다.

한편 2015년 이후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준비하면서 서원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한 경관 개선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정읍 무성서원은 ‘전라북도 공모사업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 사업(2020~2022)’을 통해 민가 지붕 구조를 일제히 교체하였으며, 전면 경관 디자인을 바꾼 논산 돈암서원 문화공원은 2019년 ‘논산 유교문화권 개발기본계획(2007)’의 연장선으로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서원 경관 디자인 문제가 경내 시설에서 주변으로까지 확장된 양상을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의 서원’은 유물전시관과 교육관 신축에서 시작하여 진입로 정비, 편의시설인 주차장, 화장실, 관광안내소 설치와 공원 · 녹지 조성을 거쳐 한옥스테이 신축이라는 흐름을 공유하였다는 점을 읽을 수 있다(그림 10). 초기에는 ‘공간 구조 및 질서’와 ‘진입 경관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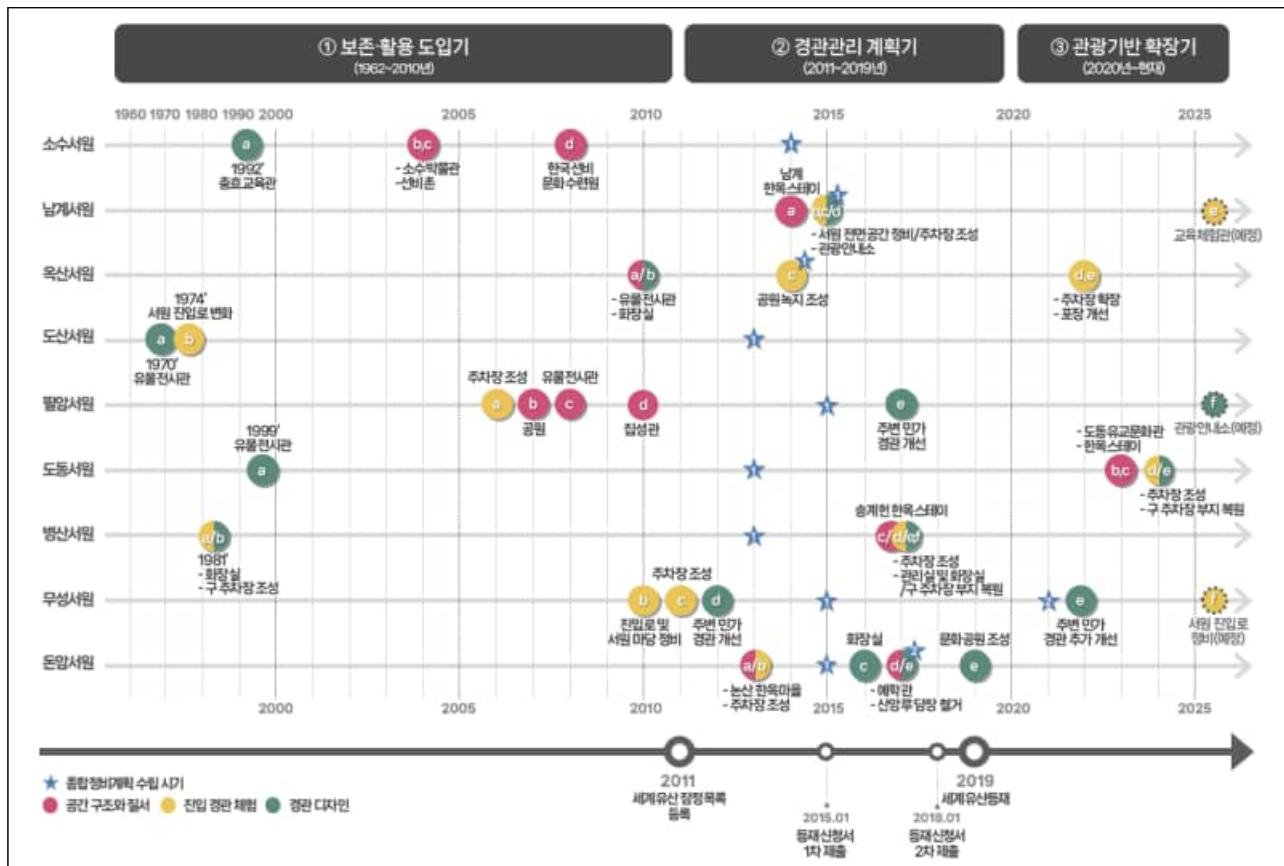


그림 10. 서원의 시기별 경관 변화 유형의 사건

을 변형시키는 사례가 드물었으나, 2004년 영주 소수서원을 시작으로 경관관리 계획기와 관광 기반 확장기에 이르러 다양한 사건이 지속되었다. 반면에 ‘경관 디자인’ 문제는 초창기 단일 건물 조성부터 공원·녹지 조성에 이르기까지 전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서원별로 보면, 안동 도산서원과 영주 소수서원은 초창기 성역화사업과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이후 비교적 안정된 경관을 유지한 반면, 후발 주자에 해당하는 장성 필암서원, 정읍 무성서원, 논산 돈암서원은 적극적 정비 사업을 통해 다양한 경관 변화를 겪었다. 이는 서원이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서 잠재력을 지니며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포함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업들은 시기별 정책 변화에 따라 교육 기능 강화, 관광 활성화, 세계유산 등재 대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서원 현장의 경관에 대한 적용 태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원과 주변 경관의 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국가지정유산 경계 밖 보호구역과 허용기준 구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주요 시설의 위치는 서원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하는데

(그림 11), 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경관 관리에 주목해야 하는 근거를 설명한다.

IV. 결론

본 연구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 서원 9개소를 대상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관 변화를 시기별·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사진을 활용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서원 주변 경관 변화 양상을 제도적 전환점과 정책에 따라 세 가지 시기로 구분하였다. 보존·활용 도입기(1962~2010년)에는 문화재 보수·정화 사업에 발맞추어 유물의 과학적, 안전한 보존과 학습을 목적으로 한 유물전시관, 교육관, 박물관이 서원 경내와 전면부에 도입되었다. 경관관리 계획기(2011~201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며 각 서원의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물리적 개입이 본격화되면서 진입 동선 정비, 공원 조성, 편의시설 확충, 한옥스테이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관광기반 확장기(2020년~현재)에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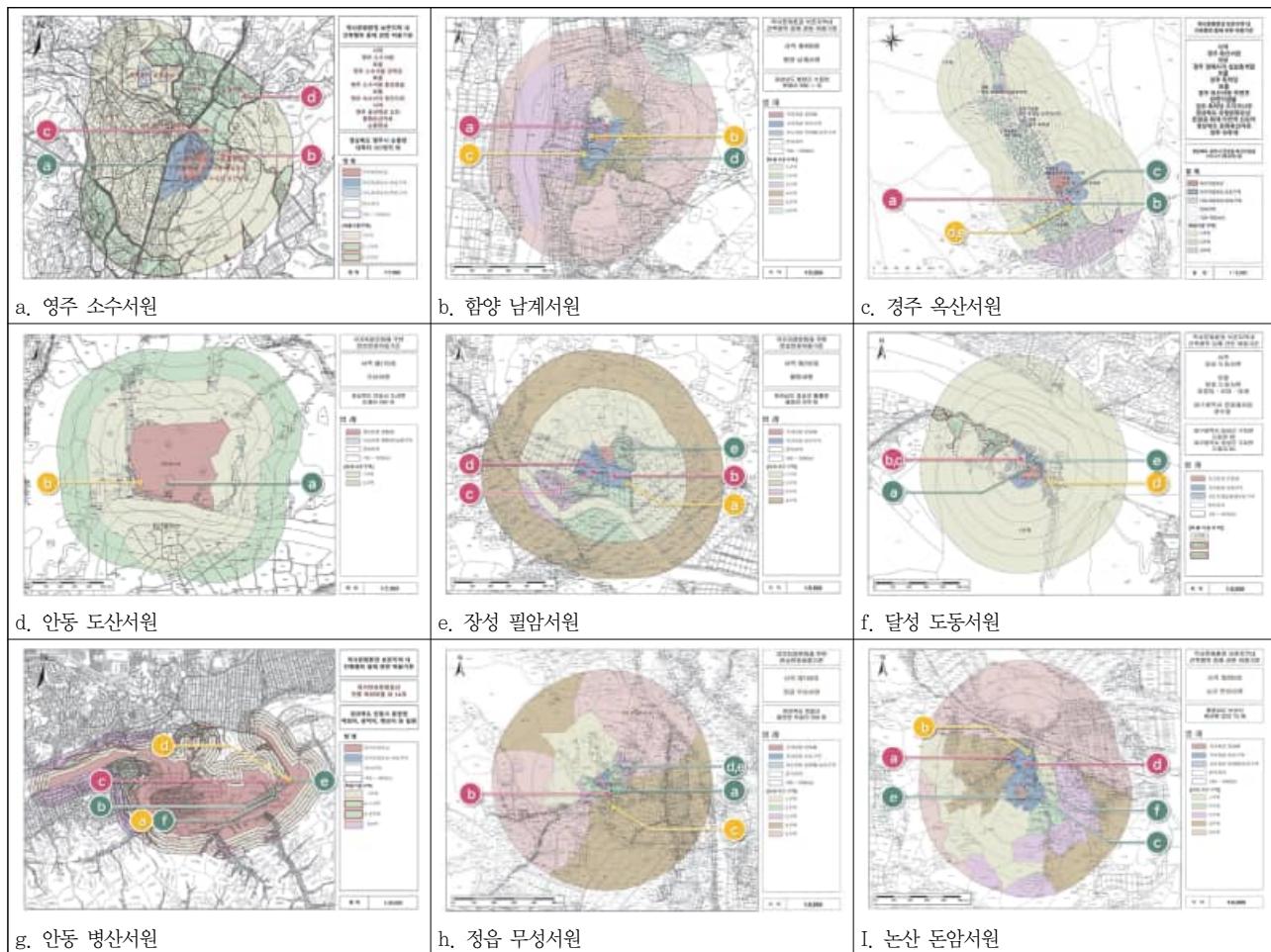


그림 11. 서원별 주요 경관 변화 시설의 분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도면[15]을 바탕으로 작성)

문자 중대와 관광 수요에 따른 지역 개발 요구로 주차장 확장, 인접한 마을 경관 개선 사업 등 서원 활용과 관련된 경관 변화가 발생하였다.

둘째, 서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대상으로 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의 중점 관리 지표를 근간으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유형별 경관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먼저 '공간 구조와 질서'에서는 남계서원과 도동서원 전면부에 가시되는 시설이 신축되어 서원 왜소화를 유발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반면 소수서원과 옥산서원에서는 이격된 대규모 시설이 주변 공간의 맥락을 교란하여 공간 위계를 혼동시킨 사례가 나타났다. '진입 경관 체험' 유형에서는 하천과 계곡의 양호한 자연에 입지하여 점진적 진입감을 얻을 수 있는 동선형 형태의 도산서원, 병산서원, 옥산서원과 주거지에 입지하여 민가와 농경지를 없애고 넓은 규모의 이질적 경관이 펼쳐지는 광장·공원형의 형태인 돈암서원, 필암서원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관 디자인'에서는 공공건축물의

위치와 규모·형태·재료 등 디자인, 주변 건축물의 디자인과 새로 조성된 공원·녹지 디자인의 문제를 도출하였다.

셋째, 시대별 정책이 개입된 다양한 사업으로 인해 9개의 서원은 보존과 활용, 훼손과 회복이 유사한 경로를 밟으며 변화해 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과거의 무질서한 주차공간 정비와 안내 체계 도입은 긍정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으나, 경관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의 여지가 남아 있으며, 고도화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서원을 지역의 잠재 자원으로 관리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경관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인식을 전제로 각 사업이 서원의 경관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야 하며, 전통경관의 진정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관광 수요를 총족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서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건축행위에 대한 허용기준 등 제도적 관리 장치가 마련된 환경에서 파악한 경관 변화 양상에 대한 이해가 세계유산으로서 서원별 경관의 고유성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는 경관 관리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주 1) 경주 옥산서원에 유물전시관과 현대시설이 들어서기 전 보존·활용 도입기(1962~2010년)의 2009년 민가의 배치(그림 2-3-a)와 경관관리 계획기(2010~2019년)에 조성된 유물전시관의 모습(그림 2-3-b)을 비교할 수 있다.

주 2) 2004년 산양루 복원 시 우측에만 담장이 설치되었다가 2009년 좌측 담장까지 조성되었다. 이코모스 현장 실사 후 권고 사항과 함께 이전에 없던 새로 설치된 담장을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자문 의견이 있었다[26].

주 3) 무성서원에 인접한 민가의 담장을 전통 토석담으로 교체하고, 필암서원과 옥산서원에 인접한 민가 건축물을 전통적 디자인으로 개선하도록 제안하였으나[10] 주변 환경과 분위기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주 4) 이와 관련하여 농지대가 풍부하고 비교적 간결하나 서원과의 디자인적 연계는 미흡하다고 분석하였다[10].

주 5) 1981년 병산서원에 화장실이 처음 조성되었으며 보존·활용 도입기에 추가 건설되었다. 2012년 보고서에서 화장실을 제거하라고 제안하였다 [10].

REFERENCES

[1]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2020). 한국의 서원 등재신청서.

[2] 박영달, 신영철(1999). 서원의 외부공간 특성—상주지방의 사례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7(3): 18~31.

[3] 이영훈, 성종상(2023). 조선시대 서원 조경의 특징과 역사적 의미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41(2): 1~10.

[4] 노재현, 신병철(2012). 중용(中庸)의 미학으로 살핀 도동서원의 경관짜임.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0(4): 44~55.

[5] 박동석(2017). 문화재 활용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2016년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5(3): 94~104.

[6] 방미영(2019). 지역문화자원으로서 유교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적 고찰—향교·서원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0(41): 99~114.

[7] 이원호(2011). 장성 필암서원의 식재현황과 정비방안.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1): 131~141.

[8] 홍윤순, 이애란, 백종철(2015). 조선 왕릉의 경관관리를 위한 통합적 시각구조분석모델 모색방안.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3(2): 49~57.

[9] 최형석, 박상화, 박영재, 이주현, 임성은(2011).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의 공간적 범위와 건축물 높이 허용 기준에 관한 연구—서울시 주요 사적 (궁)을 중심으로. 한국경관학회지. 3(2): 27~38.

[10] 문화재청(2012).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

[11]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2024).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정사영상을 통한 시계열 분석 용역.

[12] 국가유산청(202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8호).

[13] 국가유산청(2024).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국가유산청 훈령 제18호).

[14]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2020).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안내서.

[15]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https://digital.khs.go.kr/>).

[16] (재)세계유산 한국의서원 통합관리센터 홈페이지. (<https://k-seowon.or.kr/>).

[17]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2021). 「202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주요 건축물 이력—서원 건립부터 2021년까지」.

[18]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2022).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건축물 및 수목 현황 조사.

[19] 달성군(2013). 달성 도동서원 종합정비계획.

[20] 안동시(2013). 안동 도산서원 종합정비계획.

[21] 안동시(2013). 안동 병산서원 종합정비계획.

[22] 경주시(2014). 경주 옥산서원 종합정비계획.

[23] 영주시(2014). 영주 소수서원 종합정비계획.

[24] 장성군(2015). 장성 필암서원 종합정비 기본계획.

[25] 함양군(2015). 함양 낙계서원 종합정비 기본계획.

[26] 논산시(2017). 논산 돈암서원 종합정비계획(2차)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7] 정읍시(2021). 정읍 무성서원 종합정비계획(2차).

[28]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2023). 한국의 서원 경관자료 조사연구.

[29]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2025).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정기점검 보고서(해당연도 2024년).

[30] 국가유산청(2024). 역사문화환경 건축설계 가이드북.

[31] 국토정보플랫폼(<https://map.ngii.go.kr/mn/mainPage.do>).

[32]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2024).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사진화보집.

[33] 윤정훈, 김우정, 서광호(2025). “‘체류형 프로그램 필요’ 3대 문화권 관광지, 어떻게 개선해야?” 매일신문(2025.01.21.).

[34] 국토교통부 브이월드(https://www.vworld.kr/v4po_main.do).

[35] 문화재청(2010).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원고 접수일: 2025년 8월 26일
심사일: 2025년 9월 8일 (1차)
제재정일: 2025년 9월 8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